

홈경기 승리 조준...광주FC '실점 줄이기' 관건

오늘 오후 7시 안양과 결전
역대전적 8승 6무 5패 우위
이정효 감독 수비안정 강조

“요즘 실점하는 부분이 많다. 보완해서 홈 경기인만큼 더 공격적인 경기를 펼치겠다.”
광주FC 이정효 감독이 FC안양과의 경기를 앞두고 ‘수비 안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광주는 15일 오후 7시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FC안양과 하나원큐 K리그2 2022 27라운드 홈경기를 치른다.

지난 26라운드 서울이랜드와의 원정경기에서 2골을 먼저 내주며 끝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었던 광주FC다. 패색이 짙은 상황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광주는 정호연과 엄지성의 활약으로 극적인 2-2 무승부를 기록했으나 최근 5경기(1승3무1패)에서만 8실점을 허용했다.

이에 광주는 이번 홈경기에서 FC안양을 상대로 반드시 ‘무실점’ 승리를 하겠다는 의

지를 다지고 있다.

14일 현재 광주(40득점)는 경남(41득점)에 이어 리그 득점 2위를 기록중이며 충남아산(20실점), 부천(21실점)에 이어 리그 최소실점 3위(23실점)에 올라있다. 수치상으로 보면 나쁘진 않지만 시즌 초반 수비 지향적 전술을 강조했던 이 감독으로서 아쉬울 수밖에 없다.

이정효 광주FC 감독은 “최근 우리 팀이 득점만큼 실점도 많이 나오고 있다. 선수들과 미팅을 통해 지난 서울이랜드전 경기를 리뷰했다. 안양전을 대비하기 위한 미팅, 체

력 회복에 중점을 뒀다”며 “실점을 줄인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잡할 수 있는 부분을 살려서 광주만의 축구를 보여 주겠다”고 밝혔다.

이번 상대 안양은 3위(11승8무5패·승점 41)에 올라있다. 시즌 중반 부침을 겪기도 했지만 최근 6연속 무패(4승 2무) 행진을 달리며 상승세를 타는 중이다. 백성동을 비롯해 김경중, 조나란 등 핵심 선수들의 활약이 돋보인다.

지난라운드 휴식으로 인해 1경기 덜 치른 2위 대전하나시티즌(11승8무5패·승점

41)과는 승점이 같다. 그러나 광주는 안양에 강했다. 역대 전적 8승 6무 5패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올 시즌 안양을 상대로 1승 1무 무패를 기록하고 있다. 홈에서 열린 지난 맞대결에서 4-0 대승을 거두며 확실하게 기세를 잡았다. 최근 6연속 무패 행진을 내달린 안양은 상승세를 타고 있고, 지난 패배를 설욕하기 위한 의지가 강하다.

광주는 홈에서 치러지는 경기인만큼 적극적인 압박과 공격으로 무실점 승리를 거둬 선두 굳히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조혜원 기자

‘스마일 점퍼’ 이상혁 정상 위한 첫 도약

내일 세계육상선수권 예선
상위 12위 안에 들면 결선행

‘스마일 점퍼’ 이상혁(26·국군체육부대)이 한국 육상 역대 첫 세계(실외)육상선수권대회 우승을 목표로 첫 도약에 나선다. 2022 세계선수권 남자 높이뛰기 예선은 한국시간 16일 오전 2시 10분 미국 오리건주 유진 헤이워드필드에서 열린다. 예선에 출전하는 선수는 총 32명이다. 32명은 2개 조로 나눠 경기를 펼치는데, 결선 자동 출전 기록 2m30을 넘거나 조에 상관없이 상위 12명 안에 들면 19일 오전 9시 45분에 열리는 결선에 진출한다. 2m30을 시도하기 전에 상위 12명이 가려지면 예선은 종료한다.

그동안 한국 남자 높이뛰기에는 ‘예선 통과’도 높은 벽이었다.

이진택이 1999년 대회에서 달성한 6위는 실외 세계선수권 한국 높이뛰기 역대 최고 성적이다. 이진택 외에는 결선에 진출한 우리나라 ‘점퍼’도 없었다.

이상혁도 2017년 런던 대회에서 2m22에 그쳐 예선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이상혁이 16일 예선을 통과하면 이진택 이후 13년 만에 세계선수권 결선 무대에 선다. 하지만 이상혁은 더 높은 곳을 바라본다. 그는 세계육상연맹이 인정한 ‘우승 후보’다.

이상혁은 지난해 열린 2020 도쿄올림픽 본선에서 2m35(4위)를 뛰어, 올해 세계선수권 기준 기록 2m33을 넘어서며 일찌감치 출전권을 확보했다.



이상혁

세계육상연맹은 남자 높이뛰기 우승 경쟁을 이상혁, 바심, 탬베리 등 ‘빅3’에, 홈에서 경기하는 해리스, 셀비매규언(미국)이 도전하는 구도로 전망한다.

이상혁은 미국으로 출국하며 “한국 시간으로 19일 오전에 결선이 열린다. 16일 예선을 통과해서 19일에 정말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다. 응원해주시면 그 힘을 얻어서 우승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가장 무거운 메달을 들고 돌아오겠다”고 말했다.

남자 높이뛰기 결선은 한국시간 19일 오전 9시 45분에 펼쳐진다. /연합뉴스



K리그 유소년 선수들 지도하는 토트넘 유소년 코치

토트넘, 세비야의 유소년 지도자 및 구단 관계자가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K리그 유소년 선수들과 지도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사진은 성남축구센터에서 진행된 토트넘 유소년 코치팀의 축구 교육 모습.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아웃되는 김하성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김하성이 14일(한국시간)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 쿼어필드에서 열린 2022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콜로라도 로키스와 방문 경기에서 4회 중전안타로 출루했으나 후속타자 에이브러햄스의 병살타때 2루에서 아웃되고 있다. 샌디에이고는 6-10으로 역전패했다. /USA투데이=연합뉴스

SSG·키움·LG 프로야구 전반기 지배

승률 6할대 3강 초강세
팀 전력 평준화·양극화

14일 전반기를 마감한 2022년 프로야구 판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엄습하기 직전인 2019년 순위표와 제법 닮았다.

6할대 높은 승률을 자랑하는 세 팀의 강세가 전반기를 지배했다.

SSG 랜더스는 개막일부터 13일까지 석 달 넘게 1위를 질주 중이다. 정규리그 시작부터 따져 역대 KBO리그 최장기간 1위다.

SSG는 56승 3무 26패를 거둬 승패 마진 +30을 기록하고 7할에 가까운 승률 0.683

을 찍고도 안심하지 못한다. 2위 키움 히어로즈, 3위 LG 트윈스의 기세가 만만치 않아서다.

키움은 54승 1무 31패(승률 0.635)에 승패 마진 +23을, LG는 51승 1무 31패(승률 0.622)에 승패 마진 +20을 각각 기록 중이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KBO리그에서 4-6월에 승패 마진 +20 이상을 올리는 팀은 가을 야구 진출은 때어 놓은 당상이라는 평가를 들었다. 초반에 승수를 벌어들인 장기 레이스를 그만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서다.

그러나 ‘절대 1강’ 시대 이후 팀 전력 평준화, 양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이런 평가

자체가 사라졌다.

특히 상·하위권의 극심한 양극화 탓에 상위 팀끼리도 경쟁이 심화한 올해, SSG와 키움, LG는 가을 야구 출전이 아닌 최상위 시드 확보라는 새로운 목표를 향해 후반기에도 전력으로 스퍼트를 해야 할 참이다.

세 팀의 강세와 대조적으로 9위 NC 다이노스(승률 0.400·32승 2무 48패), 10위 한화 이글스(승률 0.301·25승 1무 58패)는 각각 3할대, 2할대 승률 추락을 고민해야 하는 처지다.

두산, 키움, SK 등 세 팀이나 승률 6할을 기록한 건 10개 구단 체제로 재편된 2015년 이래 처음이었다.

후반기 레이스를 지켜봐야겠지만, SSG, 키움, LG의 투타 전력이 탄탄해 3강의 승률은 2019년 세 팀의 사례처럼 좀처럼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소렌스탐, LPGA ‘2인 1조’ 대회 선두

최혜진-안나린 조 공동 12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72승을 거둔 ‘전설’ 안나가 소렌스탐(스웨덴)이 ‘2인 1조’ 정규 투어 대회에 출전해 첫날 선두로 나섰다.

소렌스탐은 14일(한국시간) 미국 미시간주 미들랜드의 미들랜드 컨트리클럽(파70·6,256야드)에서 열린 LPGA 투어 이후 그레이트 레이크스 베이 인비테이셔널(총상금 250만 달러)에 마들렌 샷스트림(스웨덴)과 한 조를 이뤄 출전, 2라운드 5언더파 65타를 합쳐 공동 선두에 올랐다.

2명의 선수가 팀을 이뤄 치르는 이 대회는 1·3라운드는 공 하나로 한 팀의 2명이 번갈아 샷을 하는 포섬 방식으로 진행되며, 2·4라운드는 두 명이 각각의 공으로 경기해 매 홀 더 좋은 점수를 그 팀의 성적으로 삼는 포블 경기로 열린다.

소렌스탐-샷스트림 조는 버디 6개를 뽑아내고 보기는 하나로 막아 폴린 루생(프랑스)-데비 베버르(네덜란드)와 리더보드 맨 위에 이름을 올렸다.

메이저대회 10승을 포함해 LPGA 투어에서 72승을 보유한 여자 골프의 전설 소렌스탐은 2008년 은퇴한 뒤 정규 투어 대회에 나서지 않다가 최근 이따금 출전하고 있다.

13년 만의 복귀전인 지난해 2월 개인 브리지 LPGA에서 컷을 통과해 74위에 올랐고, 지난달 US여자오픈에서는 컷을 통과하지 못했다.

소렌스탐이 이번 대회에서 정상에 오르면 72번째 우승인 2008년 5월 미켈름 울트라 오픈 이후 14년 만에 LPGA 투어 대회에서 승수를 추가하게 된다.

비 때문에 2시간 40분 중단된 이날 경기에서 소렌스탐-샷스트림 조는 14번 홀까지 버디만 6개를 쓸어 담아 신바람을 냈다. 유일한 보기는 16번 홀(파4)에서 기록됐다.

공동 선두에 1타 뒤진 공동 3위(4언더파 66타)엔 조디 유어트 새도프(잉글랜드)-에마 텔리(미국) 등 3개 조가 자리 잡았다. 유일하게 한국 선수끼리 구성된 팀인 최혜진(23)-안나린(26)은 버디 4개와 보기 3개를 묶어 1언더파 69타를 기록, 공동 12위에 올랐다. 선두와는 4타 차다. /연합뉴스

최지만, 결승타 포함 멀티 출루 ‘팀 승리 견인’

보스턴에 4-1 승

탬파베이 레이스 내야수 최지만(31)이 선제 결승 적시타를 터트리며 팀 승리에 앞장섰다.

최지만은 14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세인트피터즈버그 트로피카나필드에서 열린 2022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보스턴 레드삭스와 홈 경기에 3번 타자 1루수로 선발 출전해 3타수 1안타 1볼넷 1타점으로 활약했다.

최지만의 시즌 타율은 0.280에서 0.281(203타수 57안타)로 소폭 올랐고, 시즌 40타점으로 란디 아로사레나와 팀 내 타점 공동 1위에 복귀했다. /연합뉴스

최지만은 1회 첫 타석에서 보스턴 오른손 투수 조시 윈코스키의 슬라이더를 그대로 지켜보다 삼진으로 물러났다.

0-0으로 맞선 3회 1사 1, 3루에서는 깔끔한 선제 결승 적시타로 앞선 타석 삼진을 설욕했다. 최지만은 볼 카운트 3볼 1스트라이크에서 윈코스키의 바깥쪽 체인업을 결대로 밀어쳐 중견수 방면 적시타를 터트렸다.

5회에는 내야 땅볼로 물러났고, 7회에는 왼손 투수 제이크 디크먼을 상대로 볼넷을 골라내 멀티 출루(한 경기 2출루 이상)를 완성했다.

탬파베이는 최지만의 결승타에 힘입어 보스턴을 4-1로 제치고 3연승을 달렸다. /연합뉴스